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8월 뉴스레터

오소서, 성령님! 8월의 여정이 시작되며, 우리 CLC-USA 공동체는 감사의 마음과 유대감, 그리고 사명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 공동체에서는 회원들이 성 이냐시오 축일을 함께 기리고 통합적 생태학, 가정 사도직, 그리고 세계적 연대를 주제로 한 활동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정신에 영감을 얻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운동부터 중서부 지역의 활기찬 가정 사도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부 KCLC 회원들의 서약식 및 새 의장 취임 예식을 통해 서약과 성소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한 여러 공동체가 프뉴마 영성 연구소(Pneuma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이냐시오 식별의 동반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양성의 기회들을 널리 나누었습니다.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 팀은 기도를 통한 모임과 사회적 옹호 활동, 그리고 전국적인 협력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스피스 돌봄에 들어간 Hilda Uribe 회원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를 모읍니다. Hilda 회원님이 CLC 공동체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기를 청합니다.

8월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공동체를 더 깊게 해 주시며, 지혜와 희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명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

지역, 전국, 프런티어 소식, 행사 및 공동체 소식

다가오는 행사들



세계화와 빈곤 팀



월레 온라인 기도 모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긴 지향들을 짧게 나눕니다. 이번 모임은 우리 프런티어의 주제인 평화, 인간 존엄성, 인종, 이주 및 빈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8월

17

8:00 PM

동부시간



청년 서밋 (Young Adult Summit)

Ignis 사도직은 청년서밋을 주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친교와 비전을 나누는 주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월

28-

30

2026

CLC 플레노 기도 요청

텍사스주 플레노 공동체의 일원이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CLC 및 성모회(Sodality)와 함께해 오신 **Hilda Uribe** 회원이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치료 및 호스피스 돌봄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Hilda 회원이 지상에서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평화 안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 통합 생태학,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중점!

가정의 삶 안에서의 통합 생태학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와 평신도 가정 생명부에서 가정 생활 안에서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7가지 핵심 주제를 조명할 수 있도록 제작한 뜻깊은 온라인 자료집을 새로 발간했습니다. 각 주제별 개요와 함께 각 가정이 함께해 볼 성찰 질문,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적 생태론 – 가정용 자료집

https://www.laityfamilylife.va/content/dam/laityfamilylife/Documenti/Pubblicazioni/Ecologiaintegrale_famiglia/25_00658_DSSUI_ING_OPUSCOLO%20X%20WEB.pdf

지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첫 번째 주제인 “지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아래, 가정을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통 만들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직접 퇴비통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 퇴비화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2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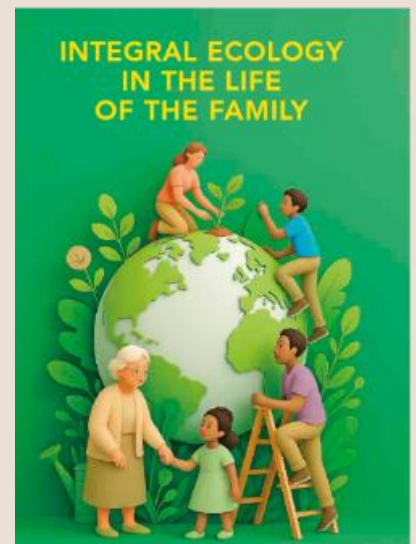
CLC-USA 통합적 생태론 활동그룹 회원들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퇴비화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이 생생한 모범들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뒷뜰에서 직접 퇴비통을 운영하는 회원부터 전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크레이튼 대학교의 기관 차원 퇴비화 사례, 그리고 주방 음식물 쓰레기를 지역 환경보전 센터로 가져가는 모습까지 다채로운 예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LC 퇴비화 실천 영상

https://youtu.be/Rm8_gZgXHMQ?si=WzvjPuo2mHaRwFFb

퇴비화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 ♦ [가정에서의 퇴비화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 ♦ [당신의 뒷뜰에서 퇴비화하는 방법 - 에코-사이클](#)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

성령과 식별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구촌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며, 교회와 세상에 존재하는 작고 구조적인 불의에 맞섬으로써 **CLC-USA 공동체**를 일깨우고 준비시킵니다.

주요 현안:

- ♦ 이주,
- ♦ 평화,
- ♦ 빈곤,
- ♦ 인종차별

Janet Sullivan Whitaker의 “평화의 날”

<https://youtu.be/Pfr7jDg7-9k?si=SKZBhD0TD7H8X88e>

진행 중인 프런티어 프로젝트

- ♦ 인식 및 연대 확장—전국 및 지역 차원의 연대활동 (세계화와 빈곤팀 웹사이트 참조)
- ♦ 희망의 30분—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담당: Murray Dalziel)
- ♦ 이민자/이주민 옹호 활동—최근 <Harvest>에 게재된 Paul Riek의 기사, "이민자 신자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다문화 교회" 조명
- ♦ 유엔 연대 활동—“원주민 여성을 위한 목소리 내기” 패널 참여 및 활동
- ♦ 아프리카 교류 모임 탐색—Deb Flynn 주도(세계화와 빈곤 팀의 Katharine Winslow 회원 참여 중)

지역 공동체의 세계화 및 빈곤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Anne.papinchak@gmail.com

월례 온라인 기도 모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모임 주제와 줌(Zoom) 링크는 세계화와 빈곤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lc-usa.com/globalization-poverty>

Zoom Link

Zoom Meeting ID: 813 7101 3736 **Passcode:** 856864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을 위해 전국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스러운 30분의 시간입니다.”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가정 사도직 안에서 믿음과 성장, 은총의 여정 – DH-CLC 중서부 지역

“지난 한 해 동안, DH-CLC 중서부 지역 가정 사도직은 하느님의 풍요로운 은총 속에서 많은 영적 사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가정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부들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셨으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성장하고 주요 활동, 그리고 은총

• 혼인 갱신 워크숍(Canh Tân Đời Sống Hôn Nhân-CTĐSHN)

저희는 휴스턴, 배턴루지, 달라스, 덴버, 그리고 캔사스등 중서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매년 혼인 갱신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신앙을 깊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 혼인 생활과 가정생활이 지닌 참된 아름다움과 그 거룩한 성소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일치와 동반, 그리고 기도의 영성

우리는 사도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한 일치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기쁜 축하의 순간뿐만 아니라 병고와 시련,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든 늘 기도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의 삶을 성실히 동반하고 있습니다.

• 예비부부들을 위한 성가정 양성 (Christian Family Formation)

저희는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성가정 양성(CFF)'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부부들이 믿음과 소통, 사랑, 그리고 성가정생활을 향한 헌신을 바탕으로 굳건한 토대를 다지게 함으로써, 평생의 은총인 혼인 성사를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돕고 있습니다.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 우리 공동체를 넘어 사명을 나눔

베트남에서 열린 부부 관계 회복 워크숍 (Marriage Renewal Workshops)에 봉사할 부부들을 파견하는 축복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봉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하며, 우리 지역 공동체를 넘어 가정 사도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MRW 이후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양성 –Hậu Canh Tân(HCT)

매월 MRW 이후 모임을 지속하여, 부부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 부부 관계의 성숙,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섬기는 리더 양성

HCT 공동체는 앞으로 열릴 부부 관계 회복 워크숍을 위해 섬기는 리더들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양성과 동반을 통해 회원들은 다양한 사도직 역할에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영적 지도와 지원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영적 지도자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 도미니코 수녀회의 Oanh Vũ, OP 수녀님입니다.

• 소규모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

HCT 회원들이 소규모 기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친교를 굳건히 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부와 가정을 위한 영적 피정

부부와 가정을 위한 영적 피정을 마련하여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 부부 관계의 치유와 쇄신, 더 굳건한 가족 관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려는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감사와 미래를 향한 희망

이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가정 사도직에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깨닫습니다. 프로그램과 참가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안에서 신앙과 친교가 더욱 깊어지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DH-CLC 중서부 지역의 가정 사도직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우리 가정들이 계속해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고 이 사도직이 앞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영광을 드립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Sống giây phút hiện tại cho tràn đầy yêu thương.*"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가정 사도직 DH(동한) CLC 중서부 지역



KCLC – 서부 지역

KCLC-서부 지역 서약식 및 제13대 KCLC 서부 지역 의장 취임식

일시: 2026년 7월 25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엘에이, 캘리포니아

집전 사제: 예수회 최성영 요셉 신부님

성 이냐시오 축일을 기념하여, KCLC 서부 지역 공동체는 서약식과 제13대 KCLC 서부 지역 의장 취임식을 은총과 기쁨속에서 거행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첫 서약 및 유기 서약 갱신을 한 **26명의 서부 회원들**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서부 KCLC 공동체 회원들**과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여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약과 공동체, 그리고 사명의 기쁨을 함께 나눈 이 아름답고 은총 가득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서약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 8명이 첫 유기 서약을 하고,
- ◆ 2명이 종신 서약을 했으며,
- ◆ 16명이 유기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KCLC – 서부 지역



KCLC – 서부 지역



CLC 동중부 지역

이냐시오 식별의 동반자 프로그램

CLC 행동 양식에 맞는 향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긴급공지 - 8월 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 8월 10일에 시작합니다.

최근 CLC 회원 중 한 분이 '이냐시오 식별의 동반자'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프네마 영성연구소(Pneuma Institute)에서 제공됩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기도 안에서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실천, 그리고 동반을 제공하며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영혼의 움직임**”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삶의 선택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러한 주의력과 자기 인식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마음가짐을 길러 줍니다.

얼마전, CLC 공동체, 호프(Hope)의 일원이자 동중부 지역의 재무를 맡고있는 **Paul Wood**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의 성찰

최근 제가 큰 결정을 앞두고 삶의 불확실과 불안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영적 동반자가 이냐시오 식별의 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때마다, 이냐시오 영성 식별의 규칙을 여러번 읽으면서, 수년에 걸쳐 그 실천을 해오곤 했습니다.

저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과정을 이끌어 주신 두 분의 놀라운 가이드를 만났고, 영적 식별이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주 동안 서로 가까워진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제 자신과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저의 온 존재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결정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식별이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편한 삶 속에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하지만, 식별의 과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안에서 평화를 찾게되었습니다.

CLC 동중부 지역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

일정:

2026년 8월 10일 부터 2026년 9월 21일 (주 1회)
월요일 저녁, 6시 ~ 9 시 (미 동부시간)

참가비:

\$300.00

등록:

[https://pneuma-community-connection.mn.co/plans/1987960?
bundle_token=ac11012e3f09d098a12cfec154e96457&utm_source=manual](https://pneuma-community-connection.mn.co/plans/1987960?bundle_token=ac11012e3f09d098a12cfec154e96457&utm_source=manual)

노스 스타(North Star) 공동체의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성 야고보의 길)은 스페인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하여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유서 깊은 순례길입니다. 이 대성당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으로 전해집니다. 9세기 초부터 순례자들은 영적 치유를 찾아 이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날에도 매년 5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되새기고, 새로운 경험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순례길을 찾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일상: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히 먼 거리를 걷는 여정 그 이상입니다. 순례길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현대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단순하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시간

- ◆ **걷는 동안 찾아오는 묵상의 시간** : 순례길의 하루는 걷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걷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걸음의 리듬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자연스럽고 서두르지 않는 하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생명력** : 순례자는 매일 자연과 햇빛을 가까이하며 걷습니다. 아침의 서늘함과 한낮의 햇살, 바람을 느끼며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경험은 순례자들을 다시 자연과 연결해 주고, 새로운 활력을 더해 줍니다.

마음을 나누는 순례자들의 공동체

- ◆ **가족이 되어가는 순례자들** : 순례길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던 벽은 허물어지고, 낯선 사람과도 마음을 열어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 ◆ **순례길을 따라 이어지는 따뜻함** :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의 경험은 알베르게(순례자 숙소)에서도 계속됩니다. 순례자 숙소를 돌보는 호스피탈레로들은 하루의 고된 여정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격려하며,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노스 스타(North Star) 공동체의 산티아고 순례길

내면의 고요와 영성

- ♦ **고독과 성찰:** 공동체와 함께 걷는 순례길이지만, 길게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는 홀로 자신과 마주하며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 ♦ **영혼의 여정:**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오랜 역사가 고스라니 깃들여 있고, 곳곳에서 성스러운 장소와 신앙의 상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된 경당과 돌십자가부터 순례길의 상징인 조개껍데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러한 흔적들은 순례자들의 마음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더욱 깊은 영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줍니다.

목적이 있는 삶

- ♦ **의미있는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경험은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할 때도, 그저 다음 마을을 향할 때도,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순례의 여정에 깊고 분명한 의미를 더해 줍니다.

노스 스타 공동체의 순례길

DHTN(Dong Hanh Young Adults, 베트남 이냐시오 동한 청년 공동체)의 노스 스타 공동체는 최근 6일 동안 사리아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5마일(약 121km)을 걸으며 잊지 못할 순례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머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길을 걷는 내내 함께 웃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의 유대감은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습니다. 6일 동안 계속해서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육체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그 길을 함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 스타(North Star) 공동체의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 여정의 시작



순례자들

노스 스타(North Star) 공동체의 산티아고 순례길



숲길을 걷는 순례자들



프랑스길의 멜리데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문어 요리를 함께 나누며

노스 스타(North Star) 공동체의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여 대성당 앞에서

2026 성 이냐시오 축일 기념 행사

감사의 마음, 사명, 그리고 일치가 넘쳐난 영적 축제의 밤

7월 30일 목요일, 미국 전역의 전국 CLC 회원들이 성 이냐시오 축일을 기리고자 온라인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120명의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하나 된 모습은 기쁨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냐시오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참가자들은 함께 촛불을 밝히며 기도의 모임으로 들어갔고, 서로 다른 시차를 넘어 각자의 화면마다 따뜻함과 빛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Angelique Jean-Noel 회원의 감동적인 시작 기도에 이어, Christine Cichello 회원이 지난 3년 동안 전국 리더십(Exco)에서 봉사해 준 Deb Flynn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Dave 신부님께서 Deb 회원을 위한 진심 어린 축복과 파견 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앞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갈 새 지도자들을 기쁘게 파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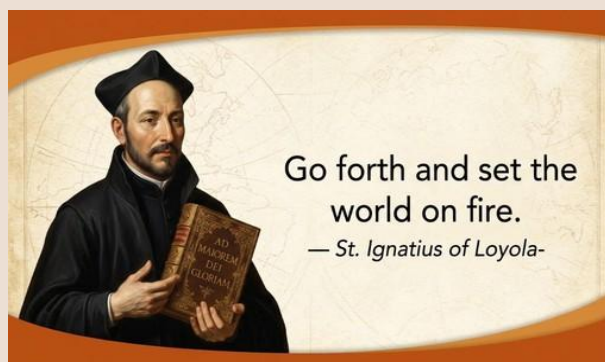
- ♦ **Frank Vuong** - 차기 의장 (President-Elect)
- ♦ **Laura Molina** - 상임 위원 (Member at Large)
- ♦ **Mimi Park** - 이냐시오 영성 프런티어 (ISF) 코디네이터
- ♦ **Tamuyen Nguyen** - 아시아인 아메리칸 사도직(AAA) 코디네이터

이날 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다채로운 목소리를 통해 이냐시오 영성이 각자의 일상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Bethany Vu (청년 공동체), Kathy Boyle (LGBTQ 공동체), Paola Celeste Quevedo, (스페인어권 문화 그룹), 그리고 Mimi Park (한국어권 문화 그룹) 회원들의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전국 공동체가 지닌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영적 대화와 성찰을 이어갔으며, Carmen 회원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사의 마무리는 다국어 기도 체험으로 정점을 이뤘습니다. Hang 회원의 인도 아래 5개 언어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가 비록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에서 왔을지라도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각 가정에서 촛불이 환히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기쁨의 파견 선언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세상에 불을 지르십시오!(Go forth and set the world on fire!)”**

모임 신청부터 빨간 옷을 입고 기도를 나눠주신 모든 분, 그리고 이번 성 이냐시오 축일 행사를 감사와 친교, 은총이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LC 정관과 통칙(General Principles and Norms) 개정을 위한 2차 자문 개시

CLC 정관(General Principles)과 통칙(General Norms) 개정을 위한 2차 자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향후 몇 주 안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관련 자료와 자문 절차에 미리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세계 CVX-CLC에서 보내온 다음 편지를 통해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참여를 위한 모임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 및 절차 개요(원문뉴스레터참조)

또한 개정안 2차 초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정안 2차 초안 – 통칙 (General Norms):원문뉴스레터참조

스페인어로 작성된 자료를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문서(원문뉴스레터 참조)

